

휴브파마코리아

‘재도약 25주년 기념 행사’ 마드리드서 개최 61개국 400명 참석... 탄소중립·항생제 원칙 등 글로벌 비전 공유

1954년 창립한 글로벌 동물 건강 및 첨가제 기업 휴브파마가 재도약 25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불가리아에 본사를 둔 휴브파마는 지난 25년간 연평균 20%

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매출이 8억유로(한화 약 1조2,280억원)로 예상되어 글로벌 순위 11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1개국 400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창립 25주년 행사는 ▲‘지속 가능한 단백질 생산의 중심은 축산업’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생산 ▲제대로 된 항생제 사용의 원칙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휴브파마코리아(지사장 홍성철)는 이번에 5명의 핵심 고객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하여 세계적 영양학 석학인 Justin Sherrad와 Aidan Connolly로부터 세계 동물성 단백질 산업에 나타날 다섯 가지 큰 기회와 1만년의 축산업 역사 및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세계 축산업 변화에 대해 설명받고 직접 페슈테라 공장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휴브파마가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적 최고의 발효 생산 인프라인 불가리아 페슈테라(Peshtera) 공장은 2019년 준공된 정밀 발효 허브로 160m³ 규모의 공정 발효조 21기와 20m³ 배양-중간 발효조 7기를 포함해 총 발효용량 3,500m³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자가 유틸리티, 환경 설비, 자동화 물류 시스템까지 갖춘 수직 통합형 생산 캠퍼스로 휴브파마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상징하는 시설로서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 문의: 02-6015-3337